

# 익산시, 어린이집 긴급 지원

### 도내 최초 지역내 185곳 운영비 지급... 각 60만원씩 코로나19 위극 극복, 고용안정·안정적 서비스 기대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급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린이집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린이집 185곳에 각 60만원씩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

로 했다. 이번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총 1억 1,100만원이 투입됐으며 시는 이날 중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운영비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에 사용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및 폐원을 방지해 보육

교직원의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육 교직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4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종립)와 익산시 14개 농축협 임직원 120여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적극 동참하였다.

## 범농협 임직원들 '사랑의 생명나눔'

### 익산지역 14개 농축협 임직원 총 120여명 헌혈행사 동참

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종립)와 익산시 14개 농축협 임직원 총 120여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번 익산시 범농협 헌혈행사는 지난 3일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 본점,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화) 본점, 5일 익산농협 파머스마켓, 익산농협 하나로마트 모현점에서 임직원들이 집합하여 헌혈을 진행하고, 읍면 지역은 같은 날 헌혈버스에 순회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익산=장왕원 기자

이종립 지부장은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익산 관내 14개 농축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헌혈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부족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익산 관내 농축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4월에 성금도 기부하였고, 익산시 저소득층을 위한 반찬나눔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의 사업도 계획 중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익산 전물군경유족회, 팔봉 군경묘역 조화교체·정화활동

### 현충일 앞두고 6610 캠페인도

익산 전물군경유족회(지회장 박연호)는 회원 30여명과 함께 4일 팔봉 군경묘역 일원에서 조화 교체 및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팔봉 군경묘역과 인근 현충시설을 찾는 보훈가족과 참배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화병의 조화 교체, 군경묘지의 비석 닦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충일을 앞두고 6610캠페인을 실시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연호 지회장은 "군경묘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한 번



익산 전물군경유족회(지회장 박연호)는 회원 30여명과 함께 4일 팔봉 군경묘역 일원에서 조화 교체 및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마음 깊이 새기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해오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 불법 폐기물 투기 원천차단

### 군산시 유관기관 공조... CCTV 감시 강화·단속카메라 설치 등

최근 산업단지 공장 건물 등을 불법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 화제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군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의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주요 불법투기 장소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군산경찰서, 군산통합관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 33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 불법 폐기물운반차량을 초기에 발견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취약시간(22:00~02:00)에 특별순찰반

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인 산업단지 순찰을 시행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처리업 108곳에 대해서는 특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예정"이라며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강력한 사법책임 및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회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박맹수 원광대 총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위촉

### 정책 자문위원 활동 등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이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에 위촉돼 2020년 재단 주요사업 및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하여 장기적인 종합적 연구 분석과 체계적이면서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도모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기반 마련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바른 역

사 정립과 국제네트워크 구축 동북아·도교 교육 연수 역사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맹수 총장은 "올 한 해 동안 일제 침탈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한일 간의 역사화해 분야에서 중추적 자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맹수 총장은 지난 3월 말 열린 전주문화방송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참여 및 자문 역할을 하는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도 선임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이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에 위촉돼 2020년 재단 주요사업 및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